

연못에 빠진 아기오리 구출한 '오랑우탄'

출처 : YTN



유튜브 사이트에서 오랑우탄 한 마리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랑우탄 한 마리가 연못을 바라보다 물에 빠진 새끼 오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물가에서 중심을 못 잡고 위험에 빠진 새끼오리, 오랑우탄이 어떻게 했을까?

일단 나뭇잎으로 새끼오리를 달래보는 듯 하더니 손으로 집어냈다. 신기한 듯 새끼오리를 잡아든 오랑우탄 입으로 가져가는 듯 하더니 결국 풀 숲에 오리를 내려 놓았다.

오랑우탄 전문가들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랑우탄이 아기 오리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랑우탄이 아기오리를 해치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던 동물원 관람객들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미, 살모넬라균 감염환자 또 발생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살모넬라균이 미국에서 또 발생했다. 오하이오 주 보건당국은 오리와 닭등에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사람 8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는 3세에서부터 76세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별로 분포했으며 해밀톤, 프랭크린 등지에서 발견됐다고 부언했다. 미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1990년대 오리새끼와 병아리등과 연계된 살모넬라균 발병이 30여건 일어났었다. 보건당국은 면역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5세이하 어린이들은 맨손으로 오리나 병아리를 만지지 말도록 조언했다. 살모넬라균은 티푸스성 질환을 일으키고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가금류 주위에서 먹거나 마시지 말며, 비벼대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는게 좋다.

[영국] 새끼오리 꿀꺽 '괴물 왜가리' 동족상잔 비극?

출처 : 서울신문

왜가리가 동족인 갯 태어난 새끼 오리들을 잇달아 잡아 먹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영국인 사진가 폴 휴스(40)는 최근 더블린에 있는 한 호숫가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가운데 어미 곁을 무리지어



다니는 새끼 오리 2마리가 왜가리에 희생되는 모습을 봤다. 휴스는 “태어난 지 하루 정도 된 새끼오리 8마리가 어미를 따라 다니고 있었는데, 굶주린 왜가리 한 마리 가 나타나더니 새끼 두 마리를 잇달아 집어삼켰다.”면서 “어미오리는 새끼가 잡아먹히는 장면을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로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주식으로 삼는 왜가리가 같은 조류를 잡아먹는 건 야생에서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휴스는 “얼마 전 새끼를 낳은 어미 왜가리가 제 새끼를 먹일 먹잇감을 찾던 가운

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뒤 “모정이 부른 동족상잔의 참상”이라고 비유했다.

[베트남]

베트남,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
기존 독감 백신 접종 중단해...

출처 : 메디게이트

베트남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며 이는 새로운 종류의 H5N1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한 후 검사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H5N1 바이러스가 2010년 이후 베트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베트남은 올해 중국에서 수입된 백신을 이용해 가금류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획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로운 종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베트남 북부 및 해안 지역에서 유행 중이며 기존 바이러스의 경우 남부 지역에 남아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변이를 통해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변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